

장애인의 주거실태¹⁾와 정책과제

- 장애인의 주거는 단순한 주택으로서의 의미보다 전반적인 생활의 중심이 되는데, 지금까지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옴. 장애인의 19%는 현재 집의 구조가 불편하다고 하였고, 약 12%는 집 구조의 개조 의향이 있었으며, 영구 임대주택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, 만족도는 주택구입자금(융자) 지원이 가장 높았음. 또한 향후 지역사회내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가장 많이 원하였음

- 따라서 장애인 주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, 주거환경 개선, 주거연계 생활지원 프로그램 실시, 장애특성 및 연령을 고려한 주거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시 됨

1. 장애인구 및 가구특성

□ 등록장애인구(보건복지부)는 2005년 실태조사 당시 1,699,329명에서, 2008년 실태조사 시에는 2,137,226명으로, 3년 사이에 약 43만명이 증가하여 전체 25.8%의 증가율을 나타냄²⁾

○ 이는 인구고령화,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증가 등으로 관련 장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장애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

□ 2008년 조사대상 장애인 가구의 가구구성은 '부부+자녀(미혼·기혼)'로 구성된 2세대 가구가 가장 많아서 전체의 31.9%였고, 그 다음은 부부로 구성된 가구 24.3%, 장애인 1인 가구 14.0%의 순으로 나타남

[표 1] 장애인가구의 가구유형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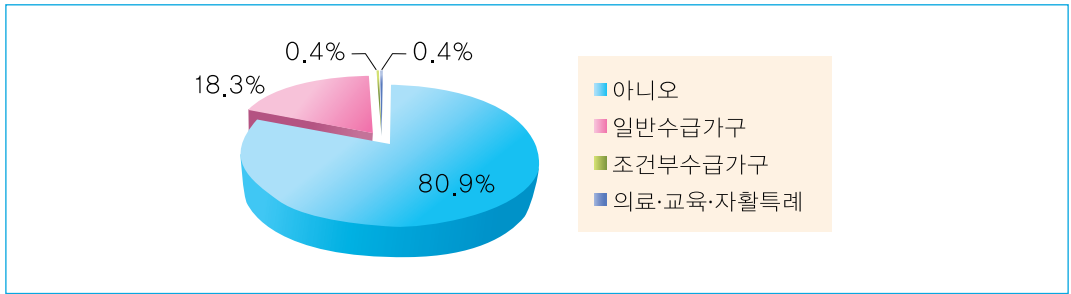
구분	구성비	구분	구성비
부부	24.3	부부 + 자녀 + 부부의 형제·자매	0.6
기타 1세대(형제·자매 등)	0.6	기타 2세대(조부모 + 손자녀 포함)	3.3
부부 + 자녀(미혼·기혼)	31.9	부부 + 자녀(미혼·기혼) + 양친·편부모	8.9
편부·모 + 미혼자녀	7.3	기타 3세대 및 4세대 이상	5.5
부부 + 양친	0.4	1인 가구	14.0
부부 + 편부모	2.3	비혈연가구	0.1
		계	100.0

□ 장애인 중 18.3%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일반수급가구였고, 그 외 조건부수급가구와 의료·교육·자활특례는 각각 0.4%로 미미하였음. 이를 일반가구의 전인구 대비 수급비율인 3.1%와 비교한다면 장애인의 수급률은 약 6배 정도 높았음

○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(66.4%), 간질장애(48.7%), 지적장애(43.5%)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비율이 높았음

1)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「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」(2009) 자료를 활용함.
2) 2010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수는 2,517,31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

[그림 1]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 여부 및 형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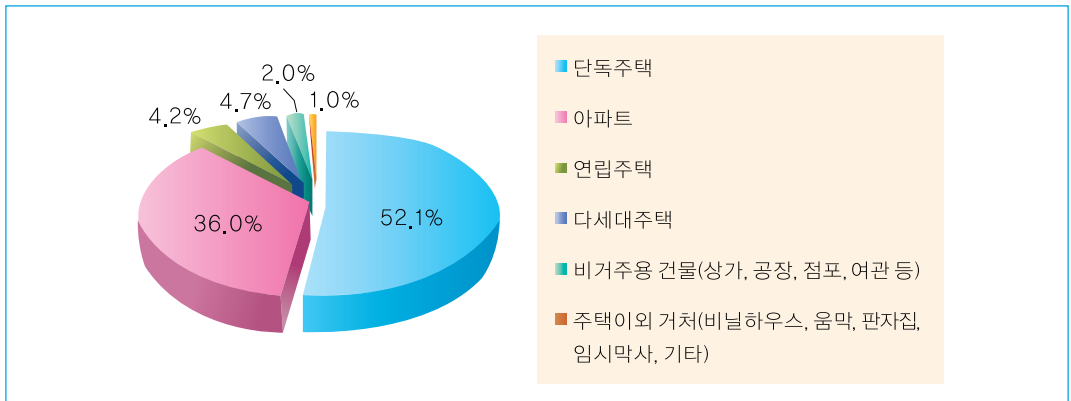


2. 장애인의 주거실태

□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52.1%로 가장 많았고, 아파트(36.0%), 다세대주택(4.7%), 연립주택(4.2%)의 순이었음. 그외 비거주용 건물 및 주택 이외 거처(비닐하우스 · 움막 · 판자집 · 임시막사 · 기타)가 3.0%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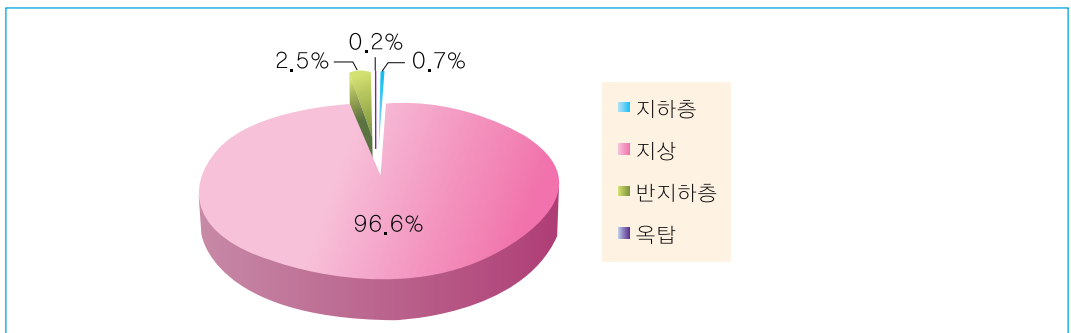
○ 이는 장애인의 경우 아파트 보다는 단독주택의 주거형태가 더 많음을 나타내는 것으로, 장애 유형별로 단독주택은 호흡기장애 (55.9%), 정신장애 (55.4%), 지체장애 (54.2%)가, 비거주용건물은 신장장애(7.5%)가, 주택이외 거처는 시각장애(1.9%)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[그림 2] 주거 형태



□ 현재 살고 있는 주거위치는 지상인 경우가 96.6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반지하층 (2.5%), 지하층(0.7%), 옥탑(0.2%)의 순이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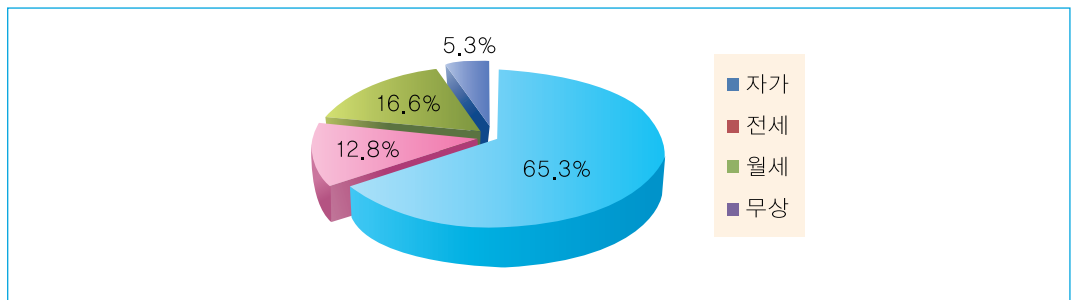
[그림 3] 주거 위치



□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유형태는 전체 장애인의 65.3%가 자가로 가장 많았고, 월세*(16.6%), 전세(12.8%), 무상(5.3%)의 순이었음

- 일반가구의 주거 소유형태가 자가(56.4%), 전세(22.3%), 월세(18.3%)의 순인 것과 비교할 때, 장애인가구의 자가 비율은 더 높았고, 전·월세 비율은 더 낮았음
- 장애 유형별로 자가는 장루·요루장애(72.8%)가, 보증금 있는 월세는 간질장애(33.5%)가, 전세는 자폐성장애(21.9%)가, 그리고 무상의 경우는 정신장애(10.3%)가 가장 많았음

[그림 4] 살고 있는 집의 소유형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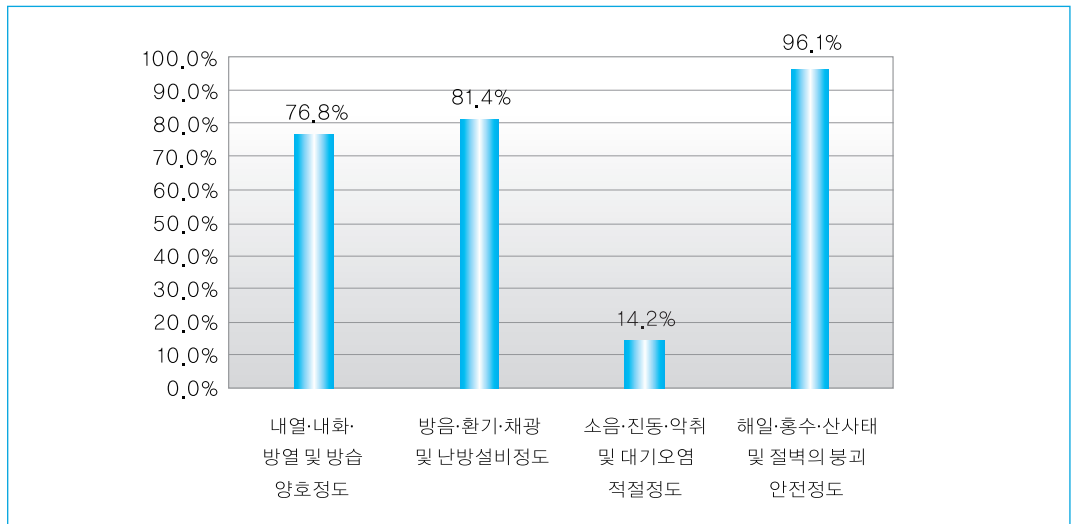


* 월세에는 보증금있는 월세, 보증금없는 월세, 사글세 포함

□ 현재 거주 주택의 구조·성능 및 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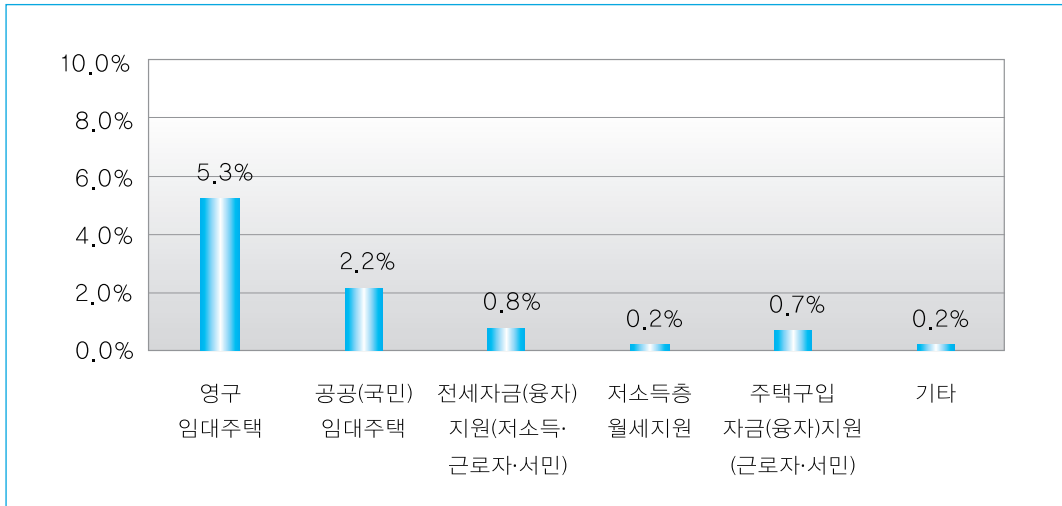
- 주택이 영구건물로서 튼튼하고,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·내화·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 장애인의 76.8%가, 적절한 방음·환기·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81.4%가 갖추고 있다고 응답함
- 소음·진동·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활하기에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14.2%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불편사항이 되고 있었음
- 해일·홍수·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96.1%가 안전하다고 응답함

[그림 5] 주택의 구조·성능 및 환경



- 지난 1년간 주거복지관련 사업의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주택의 이용률이 5.3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공공(국민)임대주택 2.2%, 전세자금(용자)지원 0.8%, 주택구입자금(용자)지원 0.7%, 저소득층 월세지원 및 기타가 각 0.2%의 순이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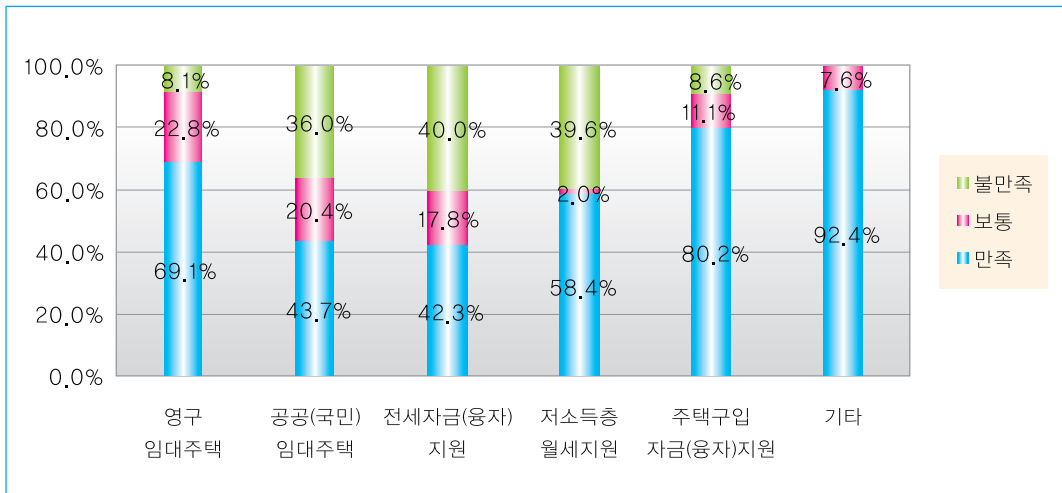
[그림 6]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(중복응답)



- 주거복지사업 이용 장애인의 만족도는 기타(92.4%)를 제외하고 주택구입자금(용자)지원의 만족도가 80.2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영구임대주택(69.1%), 저소득층 월세지원(58.4%), 공공(국민)임대주택(43.7%), 전세자금(용자) 지원(42.3%)의 순이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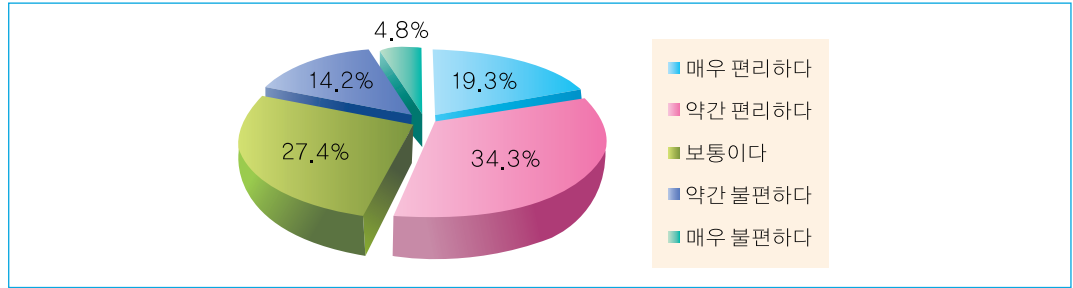
○ 주거복지사업 이용 불만족도는 전세자금 용자지원과 저소득층 월세 지원이 가장 높았음

[그림 7] 주거복지사업 이용만족도(중복응답)



-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구조가 편리한가에 대해서는 '편리하다'가 53.6%로 가장 많았고, '불편하다'는 경우는 19.0%였는데, 불편한 경우는 뇌병변장애가 28.7%로 가장 많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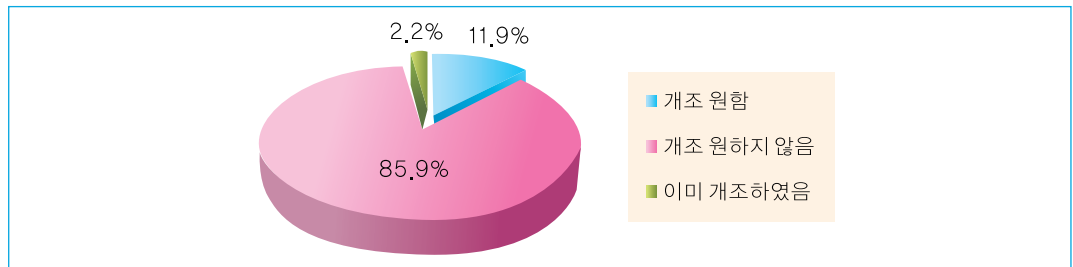
[그림 8] 집구조의 생활 편리정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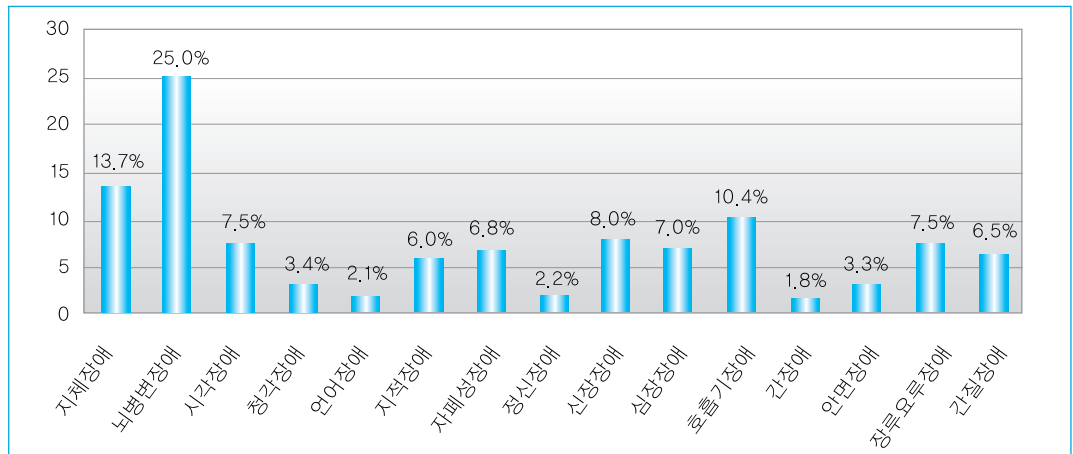
□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구조를 장애와 관련하여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고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11.9%만이 고칠 의향이 있었고, 이미 개조한 경우는 2.2%였음

○ 장애유형별로는 집구조의 개조를 원하는 경우는 뇌병변장애가 25.0%로 가장 많았고, 개조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이동의 어려움이 비교적 적은 언어장애, 간장애, 정신장애가 97% 수준으로 가장 많았음

[그림 9] 주택 개조 의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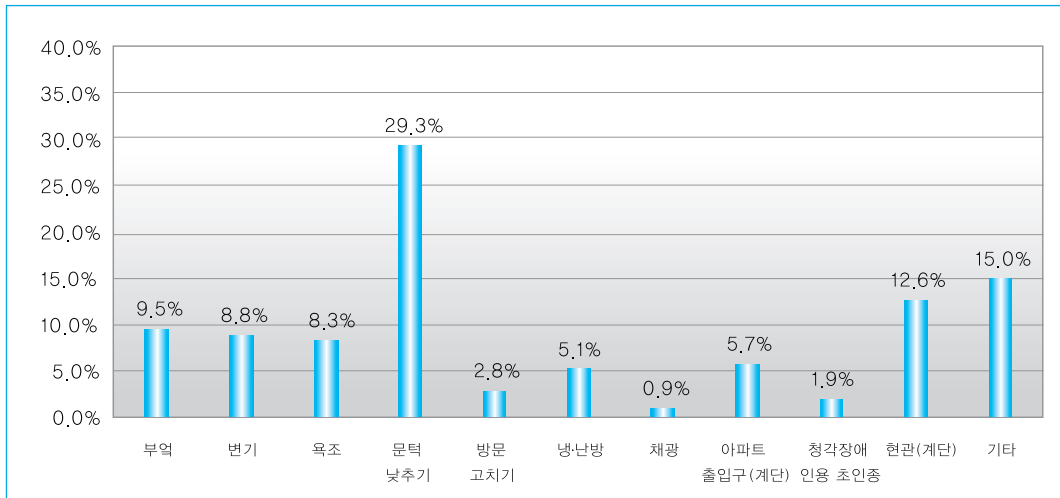


[그림 10] 장애유형별 주택 개조 희망율



□ 집안 구조를 장애와 관련하여 이용하기 편리하게 고치고 싶다면 어떤 곳을 우선 고치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문턱 낮추기(29.3%)가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기타(15.0%), 현관·계단(12.6%), 부엌(9.5%), 변기(8.8%)의 순이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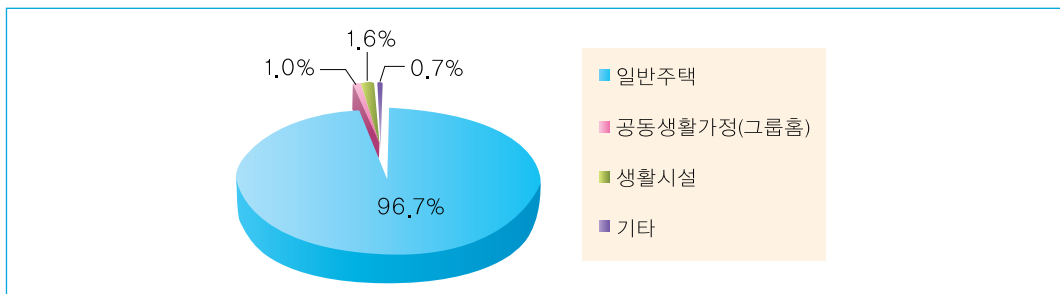
[그림 11] 주택 개조시 희망 개조 장소(1순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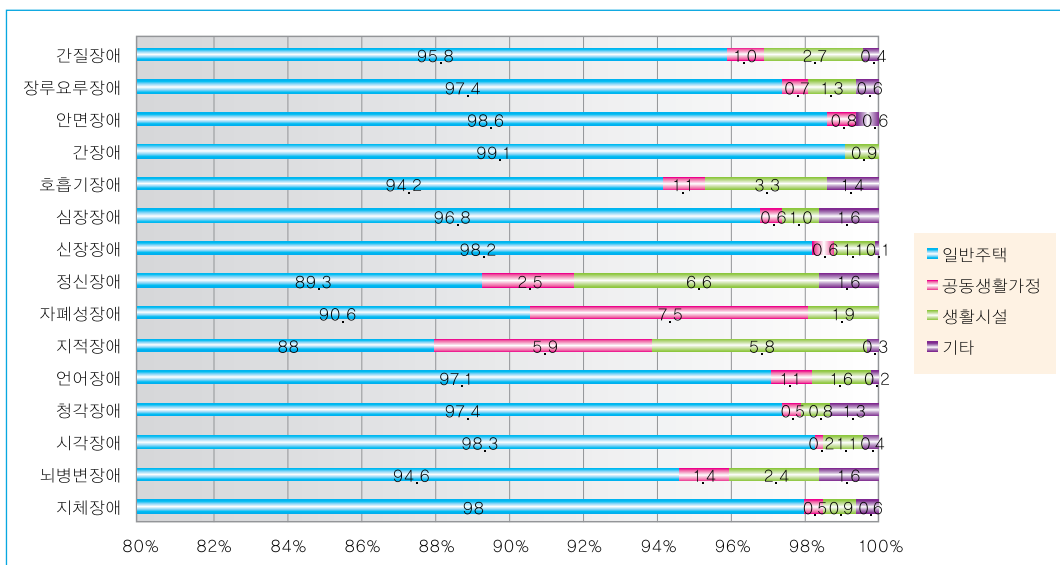
□ 향후 희망하는 주거유형으로는 일반주택이 96.7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생활 시설(1.6%), 공동생활가정(1.0%), 기타(0.7%)의 순이었음

○ 장애유형별로는 일반주택의 경우 간장애(99.1%)가,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의 경우는 자폐성장애(7.5%)가, 생활시설은 정신장애(6.6%)가 가장 많았음

[그림 12] 향후 살고 싶은 주거유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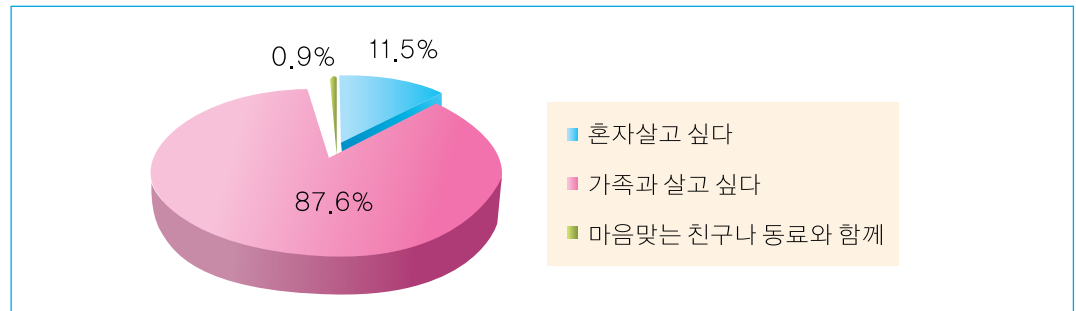
[그림 13] 장애유형별 향후 살고 싶은 주거유형



- 일반주택에서 살 경우 '가족과 살고 싶다' 는 경우가 87.6%로 가장 많아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, 다음으로 '혼자 살고 싶다' (11.5%), '마음에 맞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살고 싶다' (0.9%)의 순이었음

○ 장애 유형별로는 '가족과 살고 싶다' 는 경우 자폐성장애가 99.1%로 가장 많았음

[그림 14] 일반주택에서 살 경우 원하는 삶의 형태



3. 정책과제

-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실현을 위해 장애인의 탈시설화, 활동보조서비스 실시,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마련·시행되고 있는데,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주거지원에 대한 정책수립이 필요시 됨

○ 장애인의 주거는 단순히 거주하는 장소로서의 의미 보다는 주거환경과 다양한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매개체로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함

- 장애인의 불편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시 됨

○ 장애특성 및 욕구에 맞는 주택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

· 주택개조를 희망하는 주거내 장소는 문턱낮추기, 현관, 부엌, 변기 등으로 주택개조시 이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

○ 주거 내부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통이나 편의시설 근접 등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는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함

· 주거지에서 외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동과 참여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주거지와 연계되어 설치되어야 할 것임

-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

○ 현재 장애인 대상의 주거지원 프로그램들이 마련·시행되고 있으나, 장애인들은 한정된 정보만 가지고 있어 인지도가 낮은 상태임.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홍보가 필요함

□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주거연계 생활지원 프로그램 등이 동시에 제공되는 것이 필요함

○장애인의 주거지원 및 주거연계 생활지원서비스 제공시 장애유형 및 정도 등 장애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주거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

· 중증장애인 주거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사회편의와 같은 사회적 환경의 고려가 필요시

○또한 주거연계 생활지원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개별화된 생활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

· 특히,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또 다른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, 장애인의 연령에 맞춘 주거지원 또는 노인의 주거와 연계되는 주거지원이 필요시 됨

□ 다양한 방식의 주거비지원 및 지원액의 상향조정 등이 필요함

○장애인들의 주거지원에 있어 가장 큰 욕구는 주거비지원으로, 장애인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위해 현실적인 주거비의 상향 지원과 다양한 방식의 주거비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

· 구체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 우선분양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,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거지원이 필요함

□ 장애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마련이 필요함

○현재 장애인의 주거공간은 자신의 장애유형 등이 반영되지 않고 획일화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많은 주거불편을 겪고 있음. 특히,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현재 보조기구를 배치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른 어려움이 있음

· 이는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주거편의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 건립된 것으로,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

김성희(복지서비스연구실 부연구위원) 문의(02-380-8232)

-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http://www.kihasa.re.kr/html/jsp/public/public_01_01.jsp